

# I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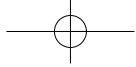
## I

## 머리말



북한 국보유적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성 고려궁성(통칭 만월대)은 고려왕조의 정궁(正宮)으로 919년(태조 2년) 건립된 이후 강도(江都)시기를 제외한 약 440년간 고려왕조의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고려궁성에 대한 조사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상호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제안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2006년 남북공동발굴조사의 대상을 고려궁성으로 확정하였으며,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60일간 궁성 중심건축군의 서쪽 30,000㎡에 대한 시굴조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 전역에 걸쳐 다양한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高麗史』에 기록되어있는 고려왕실의 진전(眞殿)인 경령전(景靈殿)의 발견은 남북공동조사단과 현장을 방문한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조사 지역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이와 같은 발굴조사에 대한 학계의 요구와 남북간의 문화재 교류에 대한 열망으로 남측의 문화재청·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문화보존지도국·민족화해협의회는 개성 고려궁성에 대한 전면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차 남북공동발굴조사는 같은 해인 2007년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음해인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3차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4차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긴급복구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료정리가 완료된 2·3차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내용만을 수록하기로 하였다.

2·3차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는 19개소에 달하며 이와 더불어 축대와 배수로 등의 시설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건물지는 경령전(景靈殿)을 비롯한 『高麗史』와 『宣和奉使高麗圖經』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전각들로 제1정전 회경전(會慶殿)이 자리하는 '중심건축군'의 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전각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청자와 막새, 명문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을 통



해 고려시대 궁성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중세고고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발간한 시굴조사보고서에 이은 고려궁성에 대한 첫번째 발굴조사보고서로 2007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2·3차 남북공동발굴조사에서 조사된 개성 고려궁성 '서부건축군' 1·2·3건물지군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았다.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2·3차 발굴조사에서는 1~3건물지군에 대한 평면조사만이 진행되었고 유구 내부에 대한 토층조사는 4차 발굴조사에서 이루어졌다. 개성 고려궁성 2·3차 남북공동발굴조사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 2차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07. 9. 7. ~ 2007. 11. 16.
- 조사지역 황해북도 개성시 송악동 일원  
고려궁성 '서부건축군' 1건물지군 3,000m<sup>2</sup>

### •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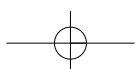
- 남측 : 국립문화재연구소
- 북측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 남측조사단

- 최맹식(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장, 조사단장)
-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관, 발굴대장)
-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 남창근(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연구원)
- 문상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김형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정태일(다큐코리아 프로듀서)
- 최흥섭(조종기사)

### • 북측조사단

- 리승혁(문화보존지도국 처장)
- 박봉철(문화보존지도국 책임부원)
- 김은룡(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대장)
- 류충성, 이상렬, 안영철(조선중앙역사박물관 학술연구사)
- 송명철, 송정길, 김종길, 리철준, 김해일, 정세성, 박영철, 박철영, 김학연, 문영일(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대원)
- 신현숙(조선중앙역사박물관 보존연구사)
- 리진우, 길용건(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사)
- 리정민, 김철호(개성고려박물관 학술연구사)



정병의(개성고려박물관 보존연구사)

리창희, 오춘삼(개성고려박물관 관리원)

류관성, 윤광진, 박영철, 백광철, 김춘국, 김은철(개성문화유적관리소 관리원)

• 조사지원

□ 남측

이춘근(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최종덕(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채수희(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박민호(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주무관)

권진호(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주무관)

신준영(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순(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홍보부장)

예대열(남북역사학자협의회 총무부장)

□ 북측

이일수(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김철용(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권원만(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김천일(민족화해협의회 운전원)

• 자문위원

정재훈(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윤용이(명지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전봉희(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안병우(한신대학교 교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특위위원장)

정태현(고려대학교 교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총괄위원장)

이성원(문화재청 차장)

박영근(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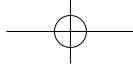
윤광진(문화재청 발굴조사과장)

배성규(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주무관)

홍형우(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관)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괄호 안은 당시 직책임



### ■ 3차 발굴조사

- 조사기간 2008. 11. 4. ~ 2008. 12. 23.
- 조사지역 황해북도 개성시 송악동 일원  
고려궁성 '서부건축군' 2·3건물지군 3,600m<sup>2</sup>

#### • 조사기관

- 남측 : 국립문화재연구소
- 북측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 남측조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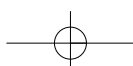
- 최맹식(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조사단장)
- 이상준(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발굴대장)
- 박성진(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 조희경(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 이나경(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이주영(동서문물연구원 연구원)
- 박현열(동서문물연구원 연구원)
- 염혜희(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졸업)
- 최흥섭(조종기사)

#### • 북측조사단

- 리승혁(문화보존지도국 처장)
- 박봉철(문화보존지도국 책임부원)
- 김은룡(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대장)
- 리상렬, 정세성, 김해일, 류충성(조선중앙역사박물관 학술연구사)
- 리철준, 송명철, 김종길, 박영철, 송정길, 강정철, 리근일, 박명진, 홍해봉, 조남철(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대원)
- 리 행(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강사)
- 리진우, 길용건, 김철남, 문기호, 리성순(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사)
- 한철용(조선민속박물관 관리원)
- 정병의(개성고려박물관 보존연구사)
- 리창휘, 오춘삼(개성고려박물관 관리원)
- 박영철, 김춘국(개성문화유적관리소 관리원)

#### • 조사지원

- 남측
- 이경훈(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
- 여성희(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 문선경(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주무관)



이병욱(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주무관)  
신준영(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순(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홍보부장)

□ 북측

고정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김철남(민족화해협의회 참사)  
김철용(민족화해협의회 참사)

•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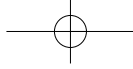
최병현(숭실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심정보(한밭대학교 교수)  
강종훈(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공석구(한밭대학교 교수)  
박진훈(명지대학교 교수)  
성정용(충북대학교 교수)  
이종서(울산대학교 교수)  
장동익(경북대학교 교수)  
조법중(우석대학교 교수)  
전덕재(경주대학교 교수)  
신창수(거례문화재연구원 원장)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김형곤(동서문물연구원 원장)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김경호(동서문물연구원 총무부장)

\*괄호 안은 당시 직책임

이상 현장을 방문한 자문위원단 외에 남측의 서중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과 북측의 리의화 문화보존지도국 부국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조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개성 고려궁성남북공동조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연과 지도의 말씀을 당부하셨다.

발굴조사는 최맹식과 리승혁의 지휘하에 이상준과 김은룡이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유적·유구의 사진과 출토유물에 대한 정리작업은 남북조사단이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현장의 유구 3D스캔은 (주)다인디지털체와 C3D가 담당하였다.

이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3D스캔은 2009년 2월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는데 유물의 3D스캔은 (주)다인디지털체, 사진촬영은 오세윤(문화재사진연구소)이 담당하였다.



보고서와 관련된 기획은 최맹식·임승경이, 실무는 박성진이 담당하였다. 조사내용의 유구 원고는 박성진이 담당하였으며, 유구의 기와와 자기에 대한 정리와 원고작성, 도면 검수는 각각 김경탁과 최명지, 자기 도면 작업은 천지선이 담당하였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의 원고작성은 김태영이, 유구도면의 검수는 김태영, 김경탁이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체제 검토와 교열은 임승경이 담당하였으며, 최맹식이 최종적으로 감수하였다. 유구와 막새, 평기와, 자기에 대한 고찰은 박성진, 최명지, 김경탁이 작성하였으며 명문기와와 청자에 대한 고찰은 각각 홍영의, 장남원 교수가 작성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신 남측의 통일부·문화재청·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문화보존지도국·조선중앙역사박물관 관계자들에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여 조사단구성에 도움을 주신 남측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동서문물연구원, 북측의 조선민속박물관·개성고려박물관·개성문화유적관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힘든 현장여건 속에서 늦은 여름부터 한 겨울까지 묵묵하게 발굴조사에 임해주신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발굴조사단 전원에게 지면을 빌려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